

호랑이들, 홈팬 응원 먹고 원기 회복 '추격 시작'



4일 오후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와 LG 트윈스의 경기가 펼쳐진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최형우가 1회말 타격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챔피언스필드, 시즌 첫 관중 입장...코치진·선수들 '엄지 척'
전상현, 사직서 관중 앞 마무리 경험...“큰 도움 됐다”

KIA 타이거즈의 전상현이 홈팬들 앞에서 '마무리'로 실력 점검을 받는다. 4일 고요하던 챔피언스필드 관중석이 야구 열기로 채워졌다. 3일부터 광주시의 사회적거리두기가 조치가 1단계로 완화되면서 '무관중'을 유지했던 챔피언스필드도 팬들을 맞게 됐다. 지난 주말 사직 원정을 통해 관중 앞에서 첫선을 보였지만 안방에서 홈팬들을 맞게 되면서 선수단의 마음도 날달랐다. 올 시즌 KBO리그에 데뷔한 마침내 홈팬들 앞에서 경기를 펼치게 된 윌리엄스 감독은 4일 경기 전 "선수들이 더 들뜨고 설레는 마음이 클 것 같다. 홈팬들 앞에서 경기할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며 "사직에서도 팬들을 경험하기는 했지만 홈팬들 앞에서 선수들이 더 힘을 받을 것이다"고 기대감을 보였다. 윌리엄스 감독을 보좌해 KIA의 유쾌한 시즌을 이끌고 있는 위더마이어 수석코치도 엄지손가락을

치켜들며 챔피언스필드의 '진짜 시즌'을 반겼다. 위더마이어 수석코치는 "팬들이 온다. 너무 좋다. 완벽하다. KBO는 훌륭하다"며 팬들을 반겼다.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 최형우에게도 특별한 경험이다. 최형우는 "(사직 관중 첫 경기) 좋았다. 누군가 우리는 보고 있다는 느낌이 달랐다"며 팬들 앞에서 다시 뛰게 된 것에 대한 의미를 부여했다. 들뜬 분위기 속에서 '긴장감'도 엿볼 수 있었다. 앞선 사직 원정에서 극적인 세이브를 기록했던 전상현은 "사직에서의 느낌일 것 같다"며 홈팬들 앞에 마무리로 서게 된 기분을 설명했다. 올 시즌 첫 관중 경기는 전상현에게 '낯설'이었다. 전상현은 "많이 달랐다. 적응이 안 됐다. 뭔가 달랐다"면서 지난 사직 경기를 돌아봤다. 이날 전상현은 3-1로 앞선 9회말 마무리로 나서 진담 승부를 했다. 첫 타자 이대호를 볼넷으로 내보냈고, 이어진 한동희와의 승부에서는 땅볼을 잡은

뒤 2루로 악송구하면서 무사 1·2루의 위기를 자초했다. 마차도의 적시타로 1점 차까지 쫓겼지만 이후 실점 없이 아웃카운트 3개를 더하면서 브룩스의 승리를 지켜냈다. 전상현은 "올해 계속 볼넷이 많아서 생각도 많아졌던 것 같다. 급했다. 긴장보다는 마음이 급했다"며 "경기장 분위기가 영향을 미쳤던 것 같다. 빨리 적응하고 다시 해야 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어려운 경기였지만 전상현에게는 좋은 공부라 했던 경기. 전상현은 "지난 경기가 많이 도움되고 발전의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 더 좋아질 것 같다"며 "팀이 승리해서 좋았다. 생각이 많았는데 이기니까 뿌듯하기도 하고 기뻐했다. 코치님도 항상 마무리로서 힘든 점을 겪어봐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도움이 많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브룩스의 승리를 지켜겠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 전상현은 브룩스가 선발로 나섰던 지난 7월 5일 NC전에서 0.1이닝 1피홈런 2볼넷 3실점으로 부진했다. 이후 경기가 6-7 역전패로 끝나면서 브룩스의 승리가 사라졌다. 전상현은 "볼넷 주고 에러하고 나서 뇌리에 앞선 경기가 떠올라 신경 쓰였다"며 "더 집중해서 던졌



4일 KIA 치어리더들이 응원법이 적힌 팻말을 들고 응원식으로 들어오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다. 다시는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더 집중했다. 그 단'이 홈팬들 앞에서 순위 싸움에 속도를 낼 수 있을 때 너무 미안했다"고 웃었다. 사직 관중 앞에서 새로운 경험을 했던 '호랑이 군' 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감독의 선택은? '투' 브룩스·'타' 나지완

전반기 MVP 선정
브룩스, 최다 이닝 소화 최저 실점
나지완, 타율 0.301...공·수 활약

브룩스와 나지완이 '호랑이 군단'의 사령탑 윌리엄스 감독이 뽑은 전반기 MVP다. 지난 5월 5일 전 세계의 이목을 받으며 시작된 KBO는 지난 1일 359경기를 끝으로 전반기 일정을 마감했다. 타이거즈 역사상 첫 사령탑인 윌리엄스 감독을 앞세운 KIA는 38승 31패, 0.551의 승률로 5위 자리에서 전반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치열한 4강 싸움이 전개됐던 전반기를 돌아본 윌리엄스 감독은 브룩스와 나지완의 이름을 언급했다. 윌리엄스 감독은 "선발투수 가운데 브룩스가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해줬다"며 "야수 중에서는 예상

을 뛰어넘은 활약을 해준 나지완이 MVP다. 3할 타율을 기록하면서 매 경기 좋은 모습을 보였다"고 언급했다. 브룩스는 올 시즌 KIA의 에이스로 역할을 해주고 있다. 전반기 15경기에 나온 브룩스는 96.2이닝을 소화하면서 6승 3패를 챙겼다. 가능성이 14경기에서 78.1이닝, 양현종이 15경기 78이닝을 책임졌다. 가장 많은 이닝을 소화했지만 평균자책점은 가장 낮다. 브룩스의 평균자책점은 2.42, 이닝당 출루허용률도 1.12로 선발진 중 가장 낮다. 빠르고 공격적인 피칭을 앞세워 외국인 투수 데뷔 전 이후 최다 연속이닝 무볼넷 기록도 21.1이닝으로 새로 작성했다. 나지완은 '반전의 시즌'을 보내고 있다. 지난 시즌 2008년 입단 이후 가장 적은 56경기를 소화한 나지완은 타율 0.186, 6홈런, 17타점으로 최악의 성적표를 작성했다. 하지만 캠프 연습경기에서부터 좌익수로 나선

나지완은 주로 4번 자리에 서서 타선의 중심이 됐다. 나지완은 전반기 69경기 중 66경기에 나와 0.301의 타율을 기록했다. 10개의 홈런을 날리며 46타점도 수확했다. 반전의 시즌을 보내며 개인 기록도 새로 작성했다. 지난 5월 29일 KT 원정에서 시즌 4호이자, 개인 통산 208번째 홈런을 날리며 '레전드' 김성환(207홈런)을 넘어 타이거즈 프랜차이즈 최다 홈런 타이틀을 차지했다. 전반기에 800타점(통산 35번째), 2000루타(역대 53번째) 기록도 작성하는 등 공격은 물론 수비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나지완은 "감독님께서 좋은 평가를 해주셔서 감사하다"며 "후반기에도 다른 욕심 없이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면서 팀에 보탬이 되는 선수가 되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발열 체크도 꼼꼼히 4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를 찾는 관중객들이 경기장 입장 전 발열검사를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